

〈宗訓〉

忠孝·德禮·勤謹·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에 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살지이다.

清州韓氏報

發行人 韓瑀洙
編輯人兼主 韓東元
印刷人 韓範東

한영인쇄사 041-563-7474

(우 : 110-179)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 세종로 대우빌딩 복합동 602호

홈페이지 : 청주한씨

☎ 720-6370~1 FAX : 720-9215

국무총리에 韓明淑일가 취임

헌정사상 첫 여성총리로 국민의 기대 커 瑀洙회장, “청주한씨의 명예이며 큰 영광”



韓明淑일가

한명숙(62)일가가 지난 4월20일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로 취임했다. 명숙일가의 국무총리 취임은 한문(韓門)에서 조선조 519년(1392~1910)을 통해 4명의 영의정을 배출한 이후 처음 있는 경사로, 우리 청주한씨 가문의 크나 큰 영광이다. ▶프로필 별항

우리 청주한씨는 조선조를 통해 13명의 상신(相臣=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배출했는데, 그 중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을 거친 후 오늘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영의정(領議政)에 오른 분이 4명이다. ▶13명의 상신 내역 별항

지난 3월24일 대통령의 총리 지명이 있을 후 일부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으나 ①부드러운 리더십 ②온화하고 친근한 인상 ③환경부장관, 여성부장관 역인과 2선 국회의원으로서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의정활동 경험 등이 긍정적인 장점으로 받아들여져 4월19일 국회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어 4월20일 취임식을 가졌다. 명숙일가는 국회임명동의를 앞둔 청문회에서 답변과 취임사, 취임 후의 기자회견 등에서 “여당과 야당, 국민이 모두 함께 타고 있는 대한민국호(號)가 어울림

의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명숙일가는 또 취임식에 참석한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400명을 서열과 관계없이 앉게 하여 종전에는 맨 앞줄에 앉던 장·차관들이 뒷줄에 앉는 등 파격적인 취임식을 가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瑀洙중앙중친회장은 “명숙일가의 국무총리 취임은 근세에 들어 청주한씨 문중에서는 최고위 관직에 오른 경사로 한문(韓門)의 명예이며 큰 영광”이라고 말하고 “지난해 음력 10월1일 시조세향 때 명숙일가가 종친회 사상 최초로 여성제관으로 제례를 올려 조상의 음덕(懿德)을 입은 것 같다”고 풀이하기도 했다. 현수회장은 특히 “명숙일가는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갑에 출마하여 제16대 국회부의장, 한나라당 원내총무를 역임한 거물정치인 홍사덕씨를 물리치고 당선된 거물 여성정치인”이라고 찬양하고 “특유의 친화력과 포용력,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으로부터 칭송받는 업적을 남겨 청주한씨의 명예를 빛내는 명총리가 되기를 80만 종친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숙일가 프로필

▶출생지 : 평남 평양

▶학 력 : 정신여고, 이화여대 불문학과, 이화여대 여성학과 대학원 졸업

▶경 력 : •한국여성민우회 회장 •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위원 •환경저 환경보전 실무대책위원회 위원 •통일부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방송개혁국민회의 공동대표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초빙연구원 •미국 뉴욕유니온 신대학대학교 객원연구원 •제16대 국회의원 •여성부장관(초대) •환경부장관 •제17대 국회의원 •가정법원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열린우리당 국정과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 회장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위원회(APPCED)집행위원장 •한·싱가폴 의원친선외교협회 회장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서훈 : 국민포장, 청조근정훈장 수상

한문을 빛낸 조선조 13명의 상신(相臣)

- ▲문간공(文簡公:휘 尙敬) 사숙공(思肅公:휘 澍)의 증손(曾孫)으로 태종 15년(1415년)에 우의정에 올랐다.
 - ▲양절공(襄節公:휘 確) 사숙공의 현손(玄孫)으로 단종 원년(1453년)에 우의정(右議政), 세조 1년(1455년)에 좌의정에 올랐다.
 - ▲충성공(忠成公:휘 明翁) 사숙공의 5대손으로 세조 8년(1462년)에 우의정, 9년에 좌의정, 12년에 영의정에 올랐다. 기축년(己丑)에 다시 두 번째 영의정을 지냈다.
 - ▲양혜공(襄惠公:휘 伯倫) 사숙공의 5대손으로 성종 6년(1475년)에 우의정에 올랐다.
 - ▲질경공(質景公:휘 致亨) 사숙공의 5대손으로 성종 2년(1471년)에 좌리공신(佐理功臣), 연산군 6년(1500년)에 영의정에 올랐다.
 - ▲장성공(章成公:휘 效元) 사숙공의 7대손으로 중종 26년(1531년)에 우의정, 29년에 영의정 겸 영경연추관 관상감 세자사(鍾靈筵春秋館 觀象監 世子師)가 되었다.
 - ▲장헌공(莊獻公:휘 孝純) 사숙공의 9대손으로 광해군 8년(1616년)에 우의정을 거친 후 좌의정을 지냈다.
 - ▲충정공(忠靖公:휘 應貞) 사숙공의 10대손, 양절공의 6대손으로 형조, 호조, 이조, 병조판서 등 6조판서를 모두 거친 후 선조 40년(1607년) 우의정에 올랐다.
 - ▲정온공(靖溫公:휘 興一) 사숙공의 11대손으로 공조, 예조판 등을 거친 후 효종 2년(1651년)에 우의정에 올랐다.
 - ▲문숙공(文肅公:휘 익모) 사숙공 16대손, 양절공 12대손으로 영조 42년(1766년)에 우의정을 거친 후 48년(1772년) 영의정에 올랐다.
 - ▲익정공(翼貞公:휘 用龜) 사숙공의 18대손, 양절공의 14대손으로 순조 5년(1805년) 좌의정에 올랐다.
 - ▲의정공(義政公:휘 啓原) 사숙공 19대손, 문정공의 14대손으로 고종 2년(1865년) 이후 여러 판서직을 거친 후 9년(1872년) 우의정에 올랐다.
 - ▲참정공(參政公:휘 圭高) 사숙공의 20대손, 안양공의 15대손으로 고종 24년(1887년) 이후 형조판서, 법무대신 등을 거친 다음 1905년 의정부참정대신에 올라 내각을 조가했으며, 을사보호조약을 반대하고 일본정부의 작위를 거절했다.
- 〈*사숙공은 고려 충숙왕 기묘(1339년)에 우정승을 지낸 조상이다〉

청주한씨 중요사료 문화재 신청기로 중앙회, 일가들 소장사료사본 제출 요망

청주한씨 중앙중친회(회장 瑀洙)는 기자조선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삼한갑족, 명문거족으로서 선조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큰 공을 세운 역사적 업적들을 발굴, 국가적인 「문화재」로 지정받도록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일가들께서는 소장하고 있는 가문이나 조상의 귀중한 유품, 유적들이 무의미하게 사장(死藏) 또는 私藏되지 않고 「문화재」로 지정받아 훌륭했던 조상들과 한문(韓門)에 대한 평가가 한 단계 격상(格上)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에 대해 ①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繪畵),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考古)자료 ②연주,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등 유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가들 개인이나 각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사료(史料)들이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어, 추진중인 「청주한씨 역사전시관」에 전시된다면 청주한씨의 훌륭했던 발자취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영구보존될 뿐만 아니라 후손들은 선조들의 빛나는 업적을 귀감으로 삼을 것이며, 밖으로는 국내외 학계에도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각급학교의 역사교육장이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를 깊이 새기시고 일가들 개인이나 각 문중에서 소장 보존중인 사료나 유품들이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30일까지 중앙중친회에 사본(寫本)을 보내주시거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장학증서 수여식 거행 시조묘정에서 대학·고교생 56명에 5천만원



장학증서 수여식이 끝난 후 임원들과 참석일자, 장학생들은 기념촬영으로 청주한씨의 밝은 미래를 다짐했다. (원교일가 촬영)

(재)청한장학회(이사장 琇洙)는 지난 4월22일 오전 11시 시조묘정(청원군 남일면 가산리)에서 약 200명의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2006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거행, 대학생 44명, 고교생 12명 총 56명에게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의 장학증서 수여식은 지난해 11월2일 시조세향일에 시조묘역에 '청한장학기금 20억 달성 기념비'가 건립된 후 처음으로 거행되었을 뿐 아니라 장학생도 지난해의 39명에서 56명으로, 장학금도 3,1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 다른 어느 때 보다도 그 뜻이 컸다.

▶장학생 명단 별항

지난 1999년 설립된 청한장학회는 올해 제6회까지 220명의 대학생, 고교생 후손들에게 총 1억8,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날의 장학증서 수여식은 琇洙중앙회장 겸 장학회 이사장, 청한장학후원회장 陽命상임고문, 春植예빈운공회장의 시조부군 양위 앞 고유(告由)에 이어 단위 장학회 회장 등 장학사업에 기여가 큰 지역회장, 종파회장 등 일가들을 소개하는 순서로 星燮(중앙종친회 부회장) 장학회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琇洙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한장학회는 특정인이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는 다른 장학재단과는 달리, 적게는 몇만원을 출연하기도 하고, 많게는 수억원을 기탁하여 단위장학회를 구성, 장학금을 지급하는 전국 80만 일가들의 정성이 담긴 독특하고도 자랑스러운 제도"라고 강조하고 "시조 위양공을 모신 우리 청주한씨는 500여년의 조선조를 통해 6명의 왕비, 13명의 상신(相臣), 24명의 공신(功臣)과 근세에도 총리와 부총리등 많은 인재를 배출한 명문거족이니 학생 여러분들도 청한장학회의 장학의 참 뜻을 잊지말고 각자가 지향하는 분야에서 학업에 정진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가 되어 한문의 전통을 빛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陽命회장은 축사를 통해 "장학기금을 기탁한 전국의 일가들과 단위장학회 임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지"고 만장의 박수를 유도한 다음 ①비록 장학금은 적으나 80만 일가들의 작은 출연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한문을 빛내면 그것이 바로 보답이며 ②시조묘역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하는 것은 조상의 업적을 알게하고 한문의 자손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조상을 숭상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천서혜 장학생의 소감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과 1년에 재학중이며 어머니가 청주한씨입니다. 외손에게까지 장학금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합니다. 오늘 외가인 청주한씨 문중의 장학금을 받고 무한히 기뻐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비단 장학금을 받아서 가 아니라 시조묘역을 둘러보고 우리집 외가인 청주한씨가 너무나 훌륭한 문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릉 못지않은 시조묘역에서 한 어른으로부터 청주한씨의 유래, 4위단, 장학금 20억 달성기념비 건립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비록 친손(親孫)은 아니나 외손(外孫)으로서도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가 문중을 빛내는 훌륭한 외손이 되어야 하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장학생 명단

◆대 학생 (44명)

장학생	학교명	장학생	학교명
상 훈	서원대 2년	소 미	신성대 1년
김현구	서원대 1년	보 라	이세이연합산학대 2년
수진	우석대 3년	상진	부산외대 1년
김정훈	남서울대 4년	진우	국민대 3년
허은혜	이화여대 4년	정여운	경희대 1년
승준	배재대 4년	승민	원광보건대 2년
승룡	전남대 1년	원희	전북대 2년
승태	강남대 2년	소연	광주대 1년
상철	전북대 2년	기룡	공주교육대 3년
주미	대전보건대학 3년	동훈	인하공업전문대학 2년
만중	고려대 3년	만천	한남대 3년
혜영	동양대 1년	서현	충남대 1년
샘	건국대 1년	승재	서울대 1년
이경무	공주대 1년	천서혜	한국예술종합학교 1년
박상수	세명대 4년		
유경	서울대 4년		
진섭	춘천교대 1년		
광석	한림대 3년		
김유진	남서울대 1년		
준규	공주대 1년		
범규	성균관대 1년		
홍진아	송실대 4년		
유덕	송실대 1년		
이후석	서울산업대 1년		
오영섭	신라대 3년		
주석	계명문화대학 2년		
성식	인천대 1년		
용운	목포해양대 1년		
종민	대덕대학 2년		
상호	한림대 1년		

◆고 교 생 (12명)

장학생	학교명
승혜	안산여자정보고 1년
슬아	안산 동산고 3년
이유리	중일고 3년
승우	삼고고 1년
솔희	삼고고 2년
병석	광주제일고 3년
인선	수원여고 2년
지연	신정여상 1년
종현	협성고 3년
일상	창원용호고 1년
아름	공주여고 3년
희망	천안정보고 3년

청한장학회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회장단



중앙종친회 琇洙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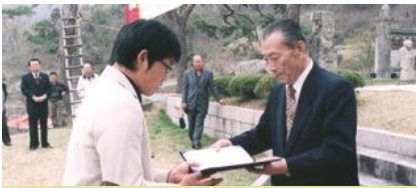
시외공단위장학회 陽命 회장



세마공단위장학회 孝惠 회장



삼재관리위원회 希天 회장



예빈운공파 春植 회장



서울시종친회 榘瑞 회장



부산시종친회 五作 회장



전북도종친회 泳敎 회장



대구 경북종친회 猷煥 회장



대전시종친회 德洵 회장



강원도종친회 益洵 회장



충북도종친회 猷煥 회장



경기도종친회 學洵 회장



교외공단위장학회 明洵 회장



낙안공단위장학회 福燮 회장



성호공파 단위장학회 太洵 회장

琚洙 회장, 잇달아 화합의 간담회 평간공 이어 서원군, 인천종친회와



琚洙중앙종친회장은 지난 3월21일부터 평간공파에 이어 3월22일에는 서원군파, 4월18일에는 인천시종친회 일가들을 차례로 초청, 화합과 친목을 다지고 승조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간담회를 잇달아 갖고 있다.

현수회장의 잇단 간담회는 신년사와 지난 2월의 취임사에서 “사랑과 화합, 동참으로 올해를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힌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의 일환이다.

평간공 일가와 간담회

중앙종친회 琚洙 회장은 지난 3월21일 정오 서울 종로1가 ‘부림’으로 陽命, 春植, 琚洙, 益洙, 喆熙, 重錫, 哲永, 萬益, 東熙, 泰教, 成龍, 光愚, 基虎, 相哲, 奎同, 星燮 일가 등 20명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종친회의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현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시 중앙종친회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감사하며 3년 임기중

종친회 발전과 일가간의 화합, 단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 기승미디어 이사장과 만나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益洙 일가는 영동 시조탄장지의 유허비와 산소 실호시(失護時)의 제단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건의했다.

서원군 일가와 간담회

중앙종친회 琚洙 회장은 지난 3월22일 정오 서울 종로1가 ‘부림’으로 윤석, 원석, 춘석, 강, 敬洙, 廣洙, 相根, 相瓚, 丙燮, 기석, 준희, 상용, 泳教, 慶錫, 相錄, 相云, 南洙, 千錫, 천식, 상하, 相一, 상명 일가들을 초청, 화합의 간담회를 가졌다.

현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9년간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협조해주신데 대해 감사하며 앞으로 3년간에도 변함없는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서원군파에서는 CD를 만들어 보급하고, 문간공파에서도 CD를 제작하고 있는데 일가간의 견해를 해소하기 위해 기승미디어 대표를 만나 사정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종친회와 감담회



장년들을 주축으로 한 구(區) 단위의 청장년회 조직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春植 회장은 인사말에서 “나도 인천시종친회장, 경기도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인천종친회와도 인연이 깊다”고 말하고 “인천시종친회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일가들이 참여하고 화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琚洙 중앙회장은 지난 4월18일 정오 인천시 부평구 농협 뒤편에 위치한 청주한식집으로 인천시종친회 일가 23명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일가간의 화합을 다지고 종친회의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중앙회에서는 春植예빈운공파회장, 星燮부회장, 南玉총무가 참석했다. 현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시종친회는 전임 基虎회장과 寬熙현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발전을 거듭해왔다”고 말하고 “종친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400여명의 청장년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천시종친회와 같이 인천시종친회에서도 30~50대의 청

“정성 어린 헌성(獻誠)에 감사 드립니다”

계좌번호가 2006년 1월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내의 일가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헌성금, 회비(임원), 장학기금, 종보(宗報)구독료 등의 헌성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손들을 위해 중앙종친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은 임원들의 회비와 80만 일가들의 헌성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경제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원들의 회비, 일가들의 헌성금과 종보구독료의 헌성이 활성화 된다면 찬란한 청주한씨의 전통을 보존·발전 시키고, 자손들을 위해 추진중인 중앙종친회의 여러 역점사업들이 힘을 받게 될 것이며, 한문의 위상을 높이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장학기금 헌성은 우리 청주한씨 명문을 이어갈 자손들의 장학사업에 지원될 가장 이상적이고, 생산적이고, 명성을 남길 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국내의 일가 여러분!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장학회관 건립을 위해 장학기금을, 종친회의 활성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성금, 회비, 종보구독료를 헌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주한씨중앙종친회 · (재)청한장학회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41 (회비, 헌성금, 종보비)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54 (족보 수단금)
- *(재)청한장학회 국민은행 009-25-0015-377(장학기금)

공릉 앞에서 충성공을 추모하며



공릉은 참으로 아름다운 숲 속에 있다. 공릉 입구 황토길 양편으로 펼쳐진 숲에는 참나무, 싸나무, 넝쿨나무 등 크고 작은 다양한 나무들이 어울어져 있다.

2006년4월7일 우리 전북도종친회 600여 일가들은 이 아름다운 숲길을 따라 공릉 앞에서 묵념 재배를 올렸다. 공릉은 조선조 8대 예종의 원비 장순왕후의 능이요, 맞은편에 자리한 순릉은 9대 성종의 원비 공혜왕후의 능이다. 공릉, 순릉은 숲 만큼이나 아름다운 능이다. 야트막하고 부드러운 보시산 자락에 마주보며 포근히 잠든 두 자매 왕비의 자태처럼 아름다운 능이다. 어쩌면 당대의 실력자 충성공(忠成公)께서 너무 일찍 가신 두분 따님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능을 지었을까.

장순왕후는 한명회(韓明澮) 할아버지 충성공의 셋째 따님이요, 공혜왕후는 넷째 따님이다. 공릉 앞에 선 우리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짐은 너무 일찍 가신 두분 왕비의 슬픔 뿐 아니라 어쩌면 우리 역사에서 너무나 큰 오해를 받아온 충성공의 억울한 심사를 위로하고 싶은 아쉬움일지도 모른다. 공은 일찍이 절에 들어가 독서에 열중했지만 불행히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잠시 경덕궁 관리인이 되기도 했으나 공의 등과 배에 북두칠성 같은 검은 사마귀가 있고, 절에서 공부할 때 밤에 산길을 걸으니 호랑이가 와서 길을 인도하여 보호해 주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비범한 면이 있었다고 한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공의 나이 40세에 친구 권람의 소개로 수양대군과 만나게 되니 그동안 펼쳐보지 못했던 능력과 지략을 마음껏 발휘하여 인생역전의 대 파노라마가 전개된다. 그 당시 정국은 12세 어린나이에 등극한 단종이 대신들의 섭정아래 불안하여, 왕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대로는 안된다고 판단한 공은 수양대군에게 인재와 정보를 제공하여 마침내 “계유정난”을 주도하니 수양대군이 옥좌에까지 오르게 되는 역사적 대사건이었다.

이후 세조, 예종, 성종 3대에 걸쳐 6조판서에 3정승을 두루 거치며 7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계를 주도하게 된다. 미관 말직인 궁직이에서 하루 아침에 정계의 실력자가 되니, 한쪽에서는 일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충신들을 추살한 사특한 모사꾼이라고 폄하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공은 왕조와 역사발전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개혁을 전개한 것이다. 세조, 성종조에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은 바로 공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500년전의 당시 사회는 오늘의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수적인 사회였으니 일부에서는 개혁을 추진하는 공을 시샘하고 미워했을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33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세조와는 사돈이요, 예종, 성종의 장인으로서 정계를 주도하게 된 것은 공이 결코 사특한 모사꾼이 아니라 그만큼 능력과 지략이 있는 비범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공은 책을 많이 읽은 만큼이나 말을 잘했고 남의 말을 잘 경청해주는 원만한 처신으로 적을 만들지 않았다. 타고난 친화력에 간명 적절할 말씀씨는 정적들까지 설득했으니 정적인 조반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했다. 수양대군도 공의 대의와 열정에 찬 업무 추진에 탄복하며 오랜 친구처럼 대하게 되었다. 또한 공은 정확한 판단력과 기획력을 가졌기에 상대편 동정을 정확히 파악, 사전에 치밀한 선제공격으로 정적을 괴멸시켰다. 계유정난 때 상·중·하의 계책을 만들어 수양대군에게 제시하여 김종서 등을 제거하고 끝내는 수양대군을 옥좌에까지 오르도록 비전을 제시했다. 마치 장량이 함양 땅을 차지한 후 눌러 앉으려는 한고조를 설득해 “줄바”가 아니라 “천하의 패자”가 되도록 한 것처럼, 나라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다. 권력을 잡는데 뛰어난 정치가요 혁명가일 뿐 아니라 탁월한 행정가였다. 병조판서 때 새로운 방어전략을 세우고 모두들 꺼려하는 북방지역에까지 몸소 나아가 여진족을 물리치고 3남지방의 농사작황을 직접 조사해 부당한 세금이 없도록 하는 등 서민대중의 삶을 걱정하고 배려하는 어버이 같은 행정가였기에 세조도 신하 중 으뜸이라고 탄복하며 더욱 중용했던 것이다. 그 후 성종도 공이 73세로 생을 마칠 때 “오직 자신보다 나라를 먼저 걱정하고 사직을 평안케 하는데 정성을 다한 충신이었다”고 충성(忠成)이라는 시호를 내리며 식음을 폐하고 슬퍼했다고 한다. 이런 충성공에게도 몇차례 위기가 있었다. 그 중 최대의 위기는 ‘이시애의 난’이었다. 회령절제사 이시애가 반역을 모의하면서 신속주, 한명회 등과 서신연락이 있었다는 자백을 한 것이다. 세조는 공의 진심과 그 충심을 의심치 않았지만 끈질긴 인관들의 탄핵을 잠재우기 위해 공의 사직서를 받아들여 삭발관직 후 자택 유폐 하였다. 그 후 세조는 정국이 안정되는 것을 보고 공을 다시 복귀시켰으니 소낙비는 피해가라는 금언대로 공의 사퇴는 세조의 부담을 덜어주고 스스로 물러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에 공의 말년이 더 빛나고 편안해졌다. (글 · 전북도회장 泳教)

“많은 투고를 기다립니다”

「청주한씨보」는 한씨일가들의 갖가지 정보를 전하는 소식지입니다. 따라서 많은 정보가 게재될 수록 유익한 좋은 소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과 각 종파의 행사, 한씨에 얽힌 정보, 일가들의 선행과 효행등에 관한 많은 투고 바랍니다. 기사에는 관련인사들의 이름, 행사일과 장소, 행사내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관련사진도 함께 행사가 끝나는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기업, 자영업을 경영하거나 전문직을 갖고 계시는 일가분들과 그 밖의 모든 일가분들 중에서 종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한 분께서는 중앙종친회 사무국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 취재하여 홍보기사를 게재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보 편집실〉

무강왕 · 왕비 춘향대제 봉행 「익산쌍릉」에 전국의 350여 일가 참석



350여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관들이 제례를 올리고 있다 (원교일가 촬영)

무강왕(武康王)과 무강왕비 춘향대제가 지난 음력 3월 15일(양력 4월12일) 오전 11시 전북 익산 소재 「익산쌍릉」(益山雙陵)에서 중앙총친회 瑀洙회장, 陽命상임고문 등 임원들과 전국 각지에서 350여명의 일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이날 대제는 '대왕뎬'로 불리는 무강왕릉에 이어 서쪽으로 약 200m 거리의 '소왕뎬'로 불리는 왕비릉에서 차례로 봉행되었다.

무강왕은 기자조선(箕子朝鮮)의 마지막 왕인 41세 애왕(哀王)이자 삼한(三韓)중 하나인 마한국(馬韓國)을 세운 태조(太祖)로, 마한 말년의 8세 원왕(元王)의 둘째 아들 우량(友諒)이 상당(上黨)한씨(청주한씨)가 되므로써 청주한씨의 선조가 된다. 따라서 청주한씨는 왕족의 후예이며 삼한갑족(三韓甲族)으로서 명문중의 명문이다. 원왕

의 장남 우평(友平)은 북원(北原) 선우(鮮于)씨가 되고 3남 우성(友誠)은 덕양(德陽) 기씨(奇氏)가 되었다.

瑀洙회장은 제례에 앞선 식전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익산쌍릉의 혼유석 등 석물을 불법적으로 철거한 익산시의 불법행위에 대해 현재 원상복구와 함께 명예훼손소송이 계류중에 있는데, 무강왕의 같은 후손인 선우씨, 기씨와 힘을 합쳐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陽命상임고문도 격려사를 통해 "우리 일가들이 일치단결하여 익산시와의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제에는 민주당 대표이며 국회의원인 和甲일가, 希天삼재관리위원회 회장, 相瑞서울시총친회장, 敬洙서원군파회장, 鮮教충성공파회장, 太燮삼한(三韓)총친회회장이 추도화환을 보내왔다.

- ▲무강왕 대제 제관분방
- 초헌관 瑀洙(중앙총친회장)
 - 아헌관 相旭(충남도총친회장)
 - 중헌관 德求(대전시총친회장)
 - 집례 一煥(제전담당부회장)
 - 축관 哲永(영흥공파회장)
 - 진설 相權(중앙회운영위원)
 - 알자 輪洙(중앙회제전부장)

- ▲무강왕비 대제 제관분방
- 초헌관 陽命(중앙회상임고문)
 - 아헌관 百賸(문정공파회장)
 - 중헌관 榮峯(중앙회고문)
 - 집례 一煥(제전담당부회장)
 - 축관 萬春(중앙회이사)
 - 진설 相權(중앙회운영위원)
 - 알자 輪洙(중앙회제전부장)
 - 봉향 相根(서울 강동구)
 - 봉로 相南(중앙회이사)
 - 사준 東根(천안시 청장년회장)
 - 봉작 相寬(천안시총친회)
 - 전작 相明(천안시총친회)

만해가 쓴 '심우도 병풍' 첫 공개



심우도 병풍

독립운동가이며 시인인 만해(卍海) 한용운(韓龍雲·1879~1944) 선사(禪師)가 쓴 10폭짜리 미공개 심우도(尋牛圖) 병풍이 지난 5월8일 건학 100주년을 맞은 동국대에 의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심우도는 사람이 진리를 깨우쳐가는 과정을 목동이 방황하고 있는 소를 찾아가는 모습에 비유, 대중들에게 정신적 깨달음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불교 경전 글귀 중 하나이다. 또한 만해의 묘가 있는 서울의 '망우리 추모공원'이 가까운 시일안에 '근대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이다.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위원 7명과 유홍준 문화재청장 등은 지난 4월27일 오후 많은 유명 애국지사들의 묘가 있는 '망우리 추모공원'을 찾아 사전조사를 했으며, 만해 묘소에서 제사를 올리기도 했다. 충남 홍성 태생인 만해는 불교지도자로,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중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독립운동가로, 그리고 시인으로 한국근대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1년에 2만원만 보내주시면 '종보'는 독립채산이 됩니다

우리들의 종보(宗報) '청주한씨보' (淸州韓氏報)는 80만 일가들의 '헌성' (獻誠)으로 유지되고 성장해가는 한문(韓門)의 유일한 소식지(消息紙)입니다. 그 '헌성'은 바로 일가분들이 1년에 단 한번 보내주시는 2만원의 '종보비'이며 그것이 '종보'의 명맥을 이어주는 양식(糧食)입니다. '종보'가 중앙총친회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일가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이제 전면 컬러로 그 모습도 날로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송금하려면 귀찮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각 시·군·구 총친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 모아서 단체로 보내면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체로 종보비를 보낼 때는 모임의 사진과 성함들을 함께 보내주시면 종보에 홍보도 해드리겠습니다. 각 지역, 각 종파의 임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앞장 서서 일가분들을 독려하신다면 종보는 한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보는 홀로 서고 싶어 합니다.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계좌번호 : 청주한씨중앙총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41
'청주한씨보' 발행인 한현수(중앙총친회장)
편집인 한동원(종보담당 부회장)

상률일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



상률일가가 지난 3월31일 국세청 조사국장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 취임했다. 상률일가는 충남 태안고와 서울대 농대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국제조사담당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등을 역임했다.

진희일가 충북경찰청장 취임



진희일가가 지난 2월21일 충북경찰청장에 취임했다. 진희청장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직접 뜯겠다는 취지아래 충북도내 전 경찰관에게 자신의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는 등의 의욕적으로 임하고 있어 신선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삼재관리위원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한 元教 중앙회 재정부장(가운데), 왼쪽이 瑀洙 중앙회장, 오른쪽이 希天회장

天植님은 옳았습니다

조상님 염원 빌어
회양공(愾陽公) 문중 울타리에
天植님 출생되어
해와 달 가는 행로에
비바람 몰아쳐 마음 흔들려도
가뭄에 잎 마르는 갈증 이겨내고
설한풍 맨살 터지도록 아렸지만
뿌리 깊은 天植님 마음 굳건하여라
만나면 편하고 마음 따뜻하고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듯
가까이 있으면 큰 마음 전해주고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天植님
자식농사 잘 지어
조바심 놓으려는데
서산에 지는 해가 되었지만
아름다운 저녁노을 영원하여라
고희주 약속되어 백수 동산으로
푸른 초원에 서서
天植님 明會님 내외귀빈 여러분
흥에 취해 가무를 즐기며
건배 건배 건배
(2006년4월2일 메이필드호텔 고희연에서 健變이가)



추·모·봉 삼재조 세제 봉향

6·7·8세조 예빈경부군, 문혜공부군, 제학공부군



6세조 예빈부원군 묘소에서 제례를 올리고 있다.

2006년도 추·모·봉(追·慕·鳳) 삼재조(三齋祖) 춘향세제(春享歲祭)가 지난 음력 3월1일(양력 3월29일) 6세조 예빈경부군(禮賓卿府君)의 추원제(追遠齋)에서, 3월2일에는 7세조 문혜공부군(文惠公府君)의 모원제(慕遠齋)에서, 3월3일에는 8세조 제학공부군(提學公府君)의 봉강제(鳳岡齋)에서, 연 3일간

琇珠 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1,200여명의 후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엄숙하게 성대히 봉행되었다. 첫날 세제에 앞서 오전 10시30분부터 東錫삼재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식전행사에서 전북고창군종친회장 相玉(32세)일가에게 감사패, 중앙회제정부장 元教(29세)일가에게 공로패, 寬朱(31세·서울시마

포구공덕동)일가에게 효자상패가 각각 증정되었다.

希天삼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신 임원님들과 일가종현들에게 삼재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추원제 예빈경부군의 유택(幽宅)혈명(穴名) 「용사취회(龍蛇聚會)는 호남 제1당인 대명당(大明堂)이며, 문혜공부군의 산소는 「비봉귀소(飛鳳歸巢)이요, 제학공부군의 산소는 「비봉포란(飛鳳抱卵)이니 우리 후손들은 대명당집 지손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자”고 강조했다.

이어 현수중앙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希天회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의 세제준비노고에 사의를 표하며, 특히 지난 2월28일 중앙종친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중앙회장에 연임하도록 의결 해주신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역동적으로 추진될 중앙종친회 사업에 일가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참여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고 東錫총무)

서원군부군 춘향세제 봉향



우천으로 영모재 재실에서 봉행되고 있는 서원군 세향

10세조 서원군부군(許 方信)의 춘향세제가 지난 4월10일(음 3월6일) 오전 11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위치한 서원군 제단에서 200여명의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이날 제례는 우천으로 묘전에서 진행이 어려워 영모재 재실에서 봉행되었다.

서원군과 敬姪회장은 인사말에서 “아버지는 쟁겨도 할아버지는 못챙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제때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할아버지를 잘 모시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陽命중앙회상임고문은 축사에서 “홍건족의 침략으로 피신했던 공민왕을 여러 장수들과 힘을 합쳐 개경으로 환도하게 한 공로로 일등공신에 서훈되고 병마사를 지내기도 한 서원군 할아버지는 산소가 없으므로 시향 때는 보다 많은 일가들이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 관

- 초헌관 元燮
- 이헌관 俊熙
- 종헌관 春錫
- 집례 敬朱
- 대축 道朱
- 사준 相烈
- 집사 濬珠, 相國, 珉錫, 相明, 圭昶, 春錫, 相根, 健燮, 相元, 相告, 仁錫, 大熙, 相俊

추·모·봉 삼재관리위원회 정기총회

추·모·봉 삼재관리위원회(회장 希天)는 지난 3월18일 오전 전남 영광군 법성면 신장리 추원제 재실에서 5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2005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안과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키는 한편 2006년도 추·모·봉 삼재 조 춘향세제(3월29일~31일)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삼재조 세향 분방

- 추원제 : 초헌관 琇珠 중앙종친회장
이헌관 元教 전북종친회장
종헌관 鮮敎 충성공파회장
- 모원제 : 초헌관 基虎 인천시 전 회장
이헌관 滄鎬 영광군종친회장
종헌관 寬熙 인천시종친회장
- 봉강제 : 초헌관 希天 3재위원회회장
이헌관 判鉉 광주시종친회장
종헌관 仁敎 광주시

사숙공·평간공·문경공 충간공·판사공·문열공 세향 봉향



후손들이 사숙공 세향을 봉행하고 있다.

9세조 사숙공부군(許 澗) 세향이 지난 음력 3월8일(양력 4월5일·청명·식목일) 오전 11시 전국에서 300여명의 일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도 장단군 진동면 서곡리 사숙공 추모단에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이어 평간공, 충간공, 판사공, 문열공부군의 세향도 차례로 봉행되었다. 제관분방은 다음과 같다.

분방 항목	사숙공	평간공	문경공
초헌관	陽 命	學 洙	榮 浩
이헌관	琇 洙	興 錫	利 澤
종헌관	敬 錫	載 興	基 燦
집례	一 煥	重 錫	泰 洙
대축	相 哲	哲 永	星 燮

원주 부론면 만세운동 재조명 기찬일가, 유족 대표해 선양사업 추진



1919년3월27일 원주지역 최초의 만세운동이 일어난 부론면 만세운동 87주년을 맞아 항일독립 거점지로 새롭게 부상(강원일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부론면 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한돈우(1901~1959)선생의 차남인 기찬(65·성남시)일가가 유족 40여명과 함께 공적기념비 건립 등을 위해 지난 3월22일 항일독립운동 원주기념사업회를 방문, 자문을 구하는 등 재조명 작업에 열정을 쏟고 있다. 기찬일가는 부론면 만세운동이 최근 원주지역 최초의 만세운동으로 입증되면서 선친에 대한 유공자 인정 진정서를 지난해 6월 국가보훈처에 제출했다. 또 1919년 일본 도쿄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등 독립운동을 펼치다 같은해 4월13일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한 한기약(1898~1941)선생과 이에 앞서 3월22일 부론면 노립보통학교 1회 졸업식장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같은달 27일 부론면 사무소 앞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한범우(1902~1920)선생의 활동상도 발굴, 부론면 출신 유공자 재조명이 탄력을 받고 있다.

3월 계룡산에서 시산제 지내고... 4월에는 모악산으로 꽃산행



계룡산 정상에 오르는 신약회원들(원교일가 촬영)

3월26일 아침 8시 광화문을 출발한 일행 40여명은 3시간반만에 공주시 계룡면 감사(甲寺) 입구 공원주차장에 도착했다. 일행은 계룡산(845m) 등산에 앞서 시산제를 올리기 위해 감사 옆 아늑한 산록에 자리를 펴고 준비해간 제수를 진설했다. 절차에 따라 현관인 琇珠 회장이 분향-헌주-배례삼배한

다음, 奎華삼부가 다음과 같이 산신축(山神祝)을 올렸다. 『풍수 좋고 정기 맑은 영산 계룡산 이곳에 와서 산신님께 고하나다. 올 한해도 청한산악회가 더욱 알차게 발전해 나가고, 내내 아무탈 없이 산행을 할 수 있게 도우시고 나아가 청주한씨 종친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비읍니다.』 이어 春植고문부터 차례로 회원들이 헌주-배례를 마친 다음 둘러앉아 음복도 하고 기념촬영(元教회원도 했다.

산행은 연천봉쪽을 택했는데, 정상까지 1시간 남짓 걸리는 등산로는 가파름의 연속이었다. 산행팀은 고개마루에서 잠시 쉬었다가 10여분을 더 가 관음봉 고개에서 다른 일행의 합류를 기다렸다.

계룡산(鷲龍山)이란 이름은 천황봉에서부터 썰개봉, 관음봉, 삼불봉, 수정봉, 연천봉 등 연달아 이어진 모습이 닭뿔을 쓴 용의 형상 같이 보여 붙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68년12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계룡산은 삼국시대부터 백제를 대표하는 명산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조선왕조의 태조가 도읍으로 삼기 위해 천황봉 남쪽 신도안에 주춧돌까지 세웠을 정

도로 역사적인 내력도 갖고 있다. 관음봉 고개에서 은선폭포-동화사에 이르는 1시간 반에 걸친 가파르고 위험한 코스로 하산한 일행은 동화사 입구 한양식당에서 전골정식으로 늦은 점심을 들면서 피로를 푼 다음 귀경길에 올랐다.

4월에 오를 모악산(母岳山·794m)은 봄과 꽃으로 상징되는 아름다운 산으로 전주시, 김제시, 원주군에 걸쳐 있다. ‘모악산의 봄’은 변산의 여름, 내장산의 가을, 백양사의 겨울과 함께 호남의 4경(景)으로 꼽힌다.

23일 오전 11시경 모악산 도립공원에 도착하니 전북종친회 泳敎회장과 기연부회장, 순호이사, 귀성이사, 중

규이사 등 임원들이 맞아주었다. 29명은 바로 산행에 올랐고, 비산행 A팀은 문정공파 19세 조교(孝鸞효견)의 이장행사에 참석 후 주변 관광.

정상까지의 산행은 험한 곳이 없어 수월한 편이었으며, 옛날 백제왕이 기우제를 지냈다는 무제봉(舞祭峰)에 오르면 동쪽으로는 원주벌과 구이저수지, 서쪽으로는 김제평야가 펼쳐진다. 다소 가파르기는 했으나 금산사 쪽으로 하산했다.

전북종친회 회장단이 장소를 마련한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양동식당에서 점심을 마치고 바로 귀경길에 올랐다. (相一)

청한산악회

세입세출 실적표

수입: 이월금, 회비, 찬조금, 기본재산, 종보사업, 문화사업, 기타. 지출: 회의비, 경상비, 현장사업, 종보사업, 문화사업, 현안사업, 기타. 합계: 47,558,010

개인정보비(3~4월)

지출(서울 서초구) 100,000, 기흥(경기 하남시) 100,000, 경석 자문위원(서울 강남구) 100,000, 철희(서울 은평구) 100,000, 기철(강원 원주시) 50,000, 동식(서울 영등포구) 50,000, 기상(서울 영등포구) 50,000, 규협(대전 중구) 50,000, 상년(전남 광양시) 50,000, 경중(전북 김제시) 50,000, 택수(서울 서초구) 50,000, 영도(서울 종로구) 50,000, 우선 부회장(문화전담) 50,000, 간섭 이사(서울 동작구) 50,000, 상신(서울 송파구) 50,000, 만택(서울 강남구) 50,000, 성진(광주 광산구) 50,000, 명철 부회장(문명광과 회장) 50,000, 기향 자문위원(서울 영등포구) 30,000, 광석 자문위원(대구 달성군) 30,000, 상환(서울 관악구) 30,000, 광식(서울 마포구) 30,000, 신숙 이사(충북 충주시) 30,000, 진수(서울 강북구) 30,000, 철희(경기 고양시) 30,000, 춘부(서울 중구) 30,000, 정윤(서울 성동구) 30,000, 석용(강원 춘천시) 30,000, 석영 이사(서울 노원구) 30,000, 상준(경기 군포시) 30,000, 석우(경기 용인시) 30,000, 규봉(충북 제천시) 30,000, 상호(충남 부여군) 30,000, 영섭(전남 나주시) 30,000, 조정(서울 마포구) 30,000, 두경(전남 나주시) 30,000, 승욱(광주 북구) 30,000, 흥준(서울 영등포구) 30,000, 술희(경북 구미시) 30,000, 기우(경기 파주시) 20,000, 규홍(서울 강남구) 20,000, 상한(경기 고양시) 20,000, 정수(서울 광진구) 20,000, 중운(전남 나주시) 20,000, 한술(경북 의령군) 20,000, 회왕(전북 군산시) 20,000, 국중(서울 송파구) 20,000, 상복(경기 안성시) 20,000, 종덕(서울 양천구) 20,000, 현동(경기 수원시) 20,000, 준희(경기 안산시) 20,000, 광희(서울 중랑구) 20,000, 광희(경기 의정부시) 20,000, 진수(충남 서천군) 20,000, 주용(경남 창원시) 20,000, 봉호(부산 동래구) 20,000, 지우(서울 도봉구) 20,000, 수현 운영위원(합암군 회장) 20,000, 상화(전북 군산시) 20,000, 대화(경북 경주시) 20,000, 창근(서울 노원구) 20,000, 동석(서울 광진구) 20,000, 황우(경기 고양시) 20,000, 상용(경북 상주시) 20,000, 동해(경기 양평군) 20,000, 창운(부산 사하구) 20,000, 상기(경기 과천시) 20,000, 광호(서울 은평구) 20,000, 현기(전북 전주시) 20,000, 광수(대전 서구) 20,000, 세동(경기 성남시) 20,000, 윤태(서울 마포구) 20,000, 사덕(서울 마포구) 20,000, 관수(서울 마포구) 20,000, 무진(경기 고양시) 20,000, 민희(경기 수원시) 20,000, 정석(서울 금천구) 20,000, 병덕(경기 화성시) 20,000, 유식(경기 김포시) 20,000, 승우(부산 부산진구) 20,000, 승구(광주 서구) 20,000, 기현(서울 노원구) 20,000, 관영(서울 강남구) 20,000, 상도 이사(서울 동대문구) 20,000, 맹석(경기 양평군) 20,000, 종근(경북 상주시) 20,000, 원규(경기 화성시) 20,000, 석구(경남 밀양시) 20,000, 진섭(광주 남구) 20,000, 중수 이사(서울 서대문구) 20,000, 광우(대전 서구) 20,000, 상모(전남 구례군) 20,000

운영회비(3~4월)

제원(경기 안산시) 20,000, 상진(충남 태안군) 20,000, 교택(경기 성남시) 20,000, 광희 이사(충남 천안시) 20,000, 성희(서울 강북구) 20,000, 기원(강원 강릉시) 20,000, 병훈(서울 중랑구) 20,000, 양섭(경기 구리시) 20,000, 두수(충남 서천군) 20,000, 장석 이사(경기 수원시) 20,000, 호근(서울 중구) 20,000, 상정(대구 남구) 20,000, 상조(광주 서구) 20,000, 상우 자문위원(경기 군포시) 20,000, 중섭(서울 영등포구) 20,000, 성환(경남 밀양시) 20,000, 김용(서울 노원구) 20,000, 명석(서울 구로구) 20,000, 태수(울산 중구) 20,000, 영택(경북 영덕군) 20,000, 일선(전남 나주시) 20,000, 충수(충북 진천군) 20,000, 용수(경북 영천시) 20,000, 상덕(서울 영등포구) 20,000, 정기(서울 양천구) 20,000, 병준 이사(서울 관악구) 20,000, 상수(서울 구로구) 20,000, 인석 이사(서울 영등포구) 20,000, 길수(서울 영등포구) 20,000, 덕수(서울 광진구) 20,000, 현석(서울 강북구) 20,000, 옥현(경북 영천시) 20,000, 규인(경북 포항시) 20,000, 정준(서울 은평구) 20,000, 원훈(서울 광진구) 20,000, 주희(서울 서초구) 20,000, 찬희(경북 영천시) 20,000, 상준(인천 남구) 20,000, 승연(서울 구로구) 20,000, 명구(부산 수영구) 20,000, 재한(경기 성남시) 20,000, 규승(경기 김포시) 20,000, 동덕(경기 군포시) 20,000, 모심 이사(경기 안산시) 20,000, 기문(서울 영등포구) 20,000, 기석(서울 강동구) 20,000, 신희(경기 용인시) 20,000, 철수(경기 시흥시) 20,000, 상욱(서울 영등포구) 20,000, 승수(경기 파주시) 20,000, 재규(서울 용산구) 10,000, 상훈(서울 도봉구) 10,000, "성명, 주소불명" 10,000, 순례(서울 관악구) 10,000, 봉수(서울 영등포구) 10,000, 성구(경북 경주시) 10,000, 춘섭(경기 안성시) 10,000, 택용(서울 노원구) 10,000, 춘연(서울 광진구) 10,000, 봉희(서울 광진구) 10,000, 봉기(경기 용인시) 10,000, 태수(서울 관악구) 5,000, 합계 3,905,000

일반찬조현성금(3~4월)

무강왕, 왕비대제 현성금 1,290,000, 덕수 부회장(재정담당) 500,000, 태수 부회장(청년담당) 500,000, 회천 부회장(삼재관리위원장) 100,000, 영소 운영위원(경주시 회장) 100,000, 해동(경기 군포시) 50,000, 합계 2,540,000

무강왕 · 왕비대제 현성금

영교(전북도중친회) 100,000, 선교(충성공파회장) 100,000, 덕구(대전시중친회) 100,000, 경수(서원군파중친회) 100,000, 회천(삼재관리위원장) 100,000, 춘자(서울 용산구) 100,000, 진권(광주 광산구) 50,000, 택수(군산시중친회) 50,000, 근준(참의공중) 50,000, 영암군중친회 50,000, 원교(재정부장) 50,000, 삼배(충남 공주시) 50,000, 공주시중친회 50,000, 병수(대전시) 50,000, 광전(문정공하 처사공) 50,000, 관희(인천시중친회) 50,000, 강진 감사공파회장 50,000, 기훈(전 경남도회장) 30,000, 두석(김제시 황산면) 30,000, 모심(경기 안산시) 20,000, 윤동(경기 김포시) 20,000, 태동(서울 마포구) 20,000, 금순(경기 고양시) 20,000, 합계 1,290,000

장학기금 납부내역(3~4월)

고유번호, 이름, 금액, 총합계. 오재(상훈공) 30,000,000, 상도(서울 동대문구) 100,000, 상엽(경기 군포시) 100,000, 상학(부산 부산진구) 20,000, 면희(강원 원주시) 100,000, 광식(서울 마포구) 50,000, 태희(전북 전주시) 50,000, 기연(전북 전주시) 200,000, 현모(전북 전주시) 100,000, 석진(강원 춘천시) 100,000, 상목(경남 고성군) 50,000, 상준(인천 남구) 30,000, 태수(서울 관악구) 5,000, 재규(서울 용산구) 10,000, 인교(경북 고령군) 20,000, 황우(경기 고양시) 30,000, 을출(경남 창원군) 100,000, 병준(서울 관악구) 100,000, 동석(경기 과천시) 10,000, 택용(서울 노원구) 10,000, 준희(경기 안산시) 30,000, 철수(경기 시흥시) 20,000, 승우(부산 부산진구) 10,000, 상욱(서울 영등포구) 20,000, 승수(경기 파주시) 20,000, 선우(강원 강릉시) 10,000, 철희(경기 고양시) 50,000, 성진(광주 광산구) 50,000, 상우(대구 중구) 50,000, 양섭(경기 구리시) 10,000, 김용(서울 노원구) 20,000, 조정(서울 마포구) 30,000, 봉희(서울 광진구) 10,000, 선우(경기 김포시) 20,000, 봉호(부산 동래구) 10,000, 동덕(경기 군포시) 10,000, 국중(서울 송파구) 10,000, 총합계 31,565,000

청주한씨보감(수첩) 제작에 임원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중앙중친회가 발간을 준비중인 '청주한씨보감(寶鑑)'은 2005년 12월말 현재 자료수집에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감 임원록에 게재할 사진과 관련자료를 보내지 않은 임원들이 있어 애로가 많습니다.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촉구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요청자료 : 사진, 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지파명(支派名), 2. 접수마감 : 2006년 6월 30일, 3. 접수 및 연락처 : 청주한씨중앙중친회 ☎ 02-720-6370~1, 4. 기타사항 : 중앙중친회 제21대 임원명단('청주한씨보' 제154호, 155호, 156호)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사진과 함께 변경사항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내용 : 계대표, 왕비록, 상신록, 부마록, 향렬자(行列字)대조표 등.

청주한씨중앙중친회

단체정보비(1~4월)

인천시중친회 500,000, 세마공중중(인원) 300,000, 강북도봉중친회 300,000, 전북도중친회 300,000, 공주시중친회 240,000, 감사공파 안산중중 200,000, 태안군중친회 200,000, 재춘청양년회 200,000, 고성군중친회 200,000, 상주시중친회 200,000, 삼재관리위원회 200,000, 전주시중친회 200,000, 포항시중친회 100,000, 낙안공파(복섬) 100,000, 고창군중친회(철교) 100,000, 익산시중친회 100,000, 경주시중친회 100,000, 군산시중친회 100,000, 금촌분회(기동) 100,000, 판서공중산중중 60,000, 동원(경기 안산시) 50,000, 진해시중친회 50,000, 무주군중친회 50,000, 합계 3,950,000

회관: 상사(서울시중친회), 회천(삼재관리위원회), 경수(서원군파중회), 선교(충성공파중회), 태섭(삼한중친회), 회갑(민주당대표), 딱말: 상분(마포구 총무)

대전시종친회 정기총회

德求회장 연임, 임원 선출



대전시 종친회 정기총회

대전시종친회(회장 德求)는 지난 4월11일 일송화관에서 6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1차 정기총회를 열고 德求회장을 연임시키는 한편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감사, 총무, 이사로 재임하면서 공이 큰 起錫, 相道, 東奭, 泰燮 일가에게 감사장과 부상을 수여했으며, 임원 개선에서는 지난 4월4일의 이사회안대로 총회에 참석한 일가 전원의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새 임원을 선출

했다. (義相사무국장)

▲고문 = 孝東, 星教, 萬愚, 昌愚, 榮告, 東默, 載錫, 桂杓, 龍燮, 永洙, 泰履

▲회장 = 德求 ▲부회장=永錫, 相回, 勇煥, 秉朱, 平鏞, 甲洙, 運錫, 健洙, 基溫, 連東, 文教, 泰燮

▲이사 = 洪錫, 椀奎, 京南, 大欽, 丁鳳, 基東, 百熙, 鶴洙, 東燮, 東悅, 恒熙, 爽熙, 均宣, 창동, 정옥, 완봉

▲감사 = 起錫, 相道 ▲사무국장=義相 ▲총무=東奭

경주시종친회 정기총회

화수회도, 회장에 永昭일가

경주시종친회는 지난 3월15일 오전 경주시성간동 소재 한씨문중회관에서 50여명의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永昭일가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영소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장으로 선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나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종친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允東전임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지난 8년간 회장 재임중 임원

들과 많은 일가들의 협조에 힘입어 무사히 소임을 마친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중친회 화수회(회장 永昭)도 지난 4월11일 정오 시내 한씨중중회관에서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일가들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수길인망문중회장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용호부회장의 고유문 낭독에 이어 윤동 전임회장에게 공로패가 증정되고 永昭신임회장에게 종기가 전달되었다.

영소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종친회에서 가장 큰 행사인 시조부군 세향에 보다 많은 일가들이 참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弼屨사무국장)

충주시종친회 정기총회

청주시장 창희일가 특강

충주시종친회(회장 龍植)는 지난 3월5일 오전 200여명의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중앙종친회의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총회에서는 충주시장인 昌熙일가의 “종친회 활성화”에 관한 특강도 있었으며, 전 회장 준석일가, 전 총무 起燮일가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내빈으로는 충주시 기술센터 소장 재희일가가 참석했다. (相福총무)



충주시 종친회 정기총회

남해군종친회 정기총회

남해군종친회(회장 재호)는 지난 4월13일 이동면금평리 금천가든에서 100여명의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추진업무와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찬성공(장승)파조 묘정 참배계획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군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유사를 맡은 금평문중에서 푸짐한 음식을 마련하여 화기에애한 분위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재호회장의 인사말이 있는 다음 지난 4월16일 진주와 하동, 남해 등에서 40여명의 중현들이 관광버스편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절리에 있는 찬성공 파조 묘정을 참배한 후 협찬금 10만원을 전달하는 등 조상숭배와 일가간의 우의를 다진 행사경과도 보고되었다. 특히 일군총무는 ‘인터넷 한글대동족보’에 수록될 수단을 6월말까지 신청하면 7



충주한씨 남해군종친회 정기총회

월중(4차)에 검색할 수 있으므로 총무에게 제출하면 일괄적으로 중앙종친회에 신청할테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남조는 한유기(有起)로서 약 400년전 임진왜란 때 군관으로 출정하여 노량해전에서 많은 공을 세우고 남해에 정착하여 그 후손들이 각 면별로 골고루 분포되어있다. (일군총무)

참의공 증중모역 정화기념식

참의공 증중(회장 陽命) 모역정화 기념식이 지난 3월28일 오전 충남 공주시 이인면 소재 용덕재(龍德齋)에서 200여명의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재단법인 청한장학회에서 선별한 장학생 60명중 시외공과 시남공 몫으로 배정된 11명에게 청한장학회 장학금이 장

학증서를 수여했다. 陽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①저의 15대 조모님과 14대 조부모님 산소를 이곳에 계시는 판관공 부군과 한산이씨 할머니 산소에 합뫼 면례를 피시는 종사를 이룩하고 ②11대 조모 나주 정씨와 10세 조모 하동 정씨 고비분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왜적에게 쫓기던 중 강물에 투신하여 별세하신 두분의 정려비(旌旗碑)를 세워드렸으며 ③묘역을 지나는 4차선 도로가 완공되면서 3좌의 신도비를 한 단계 위쪽으로 옮겨 모셨으며 ④불투명 방음벽을 설치하려는 당국을 설득하여 투명방음벽으로 시공하는 등 4가지 공사를 완수하게 되니 증중은 축제분위기로 바뀌었으며 이 기쁨을 종친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오늘의 행사를 열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瑋洙중앙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가 올라오면서 보았듯이 훌륭한 묘소를 가꾸어 놓은 시남 양명회장의 투철한 승조정신에 재삼 놀랐다”고 말하고 “양명회장께서는 일찍이 단위장학회를 설립했으며, 2억원 이상의 거금을 출연하셔서 오늘과 같이 11명이라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본 장학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극찬했다.

孝東세마공 단위장학회장은 축사에서 “중앙종친회장을 세 번이나 역임하면서 시조묘역 성역화, 세일재 중수 등 다방면으로 종친회 발전에 기여해 온 양명회장을 존경해 왔는데, 오늘 이곳에 와서도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2척(尺)의 단갈(短碣)에 기록된 152자의 비문은 456년전의 당시의 상황을 한눈에 보듯 잘 설명해주고 있다.

『十六世 別提公諱 世琛墓 碣銘(原文)
韓上黨望族諱世琛字國 玆政丞蘭之裔觀察諱 其祖判官諱 俶其考 妣李氏 僭衣諱士 伺之孫戊戌八月癸亥公以疾終壽六十三同年十月葬于光州松山丑坐未向之原其 妣之塋在於原之左稍上公娶贊成李孟昶之孫丙申先公遊葬于廣陵 嗚呼夫婦異穴母子同原雖失於誓大義斯完幽明如一一定省無間
嘉靖十九年庚子十一月 日 孤子 垣 泣血書于石』

중앙종친회 내방 일가

- 大燮 대전 유성구
- 文植 경기 안산시
- 俊熙 경기 안산시
- 상필 경기 하남시
- 杜錫 전북 김제시
- 文欽 서울 노원구
- 동식 서울 종로구
- 동희 충북 영동읍
- 奎奭 대전 중구
- 光傳 경기 안성시
- 원교 서울 구로구
- 鏞顯 인천 연수구
- 必傳 경기 광주시
- 元 경북 상주시
- 相勳 경기 용인시
- 愚仙 문정공파
- 삼성 서울 강서구
- 주영 전북 김제시
- 東億 문정공파
- 武龍 서울 관악구
- 동식 서울 영등포
- 相根 서울 금천구
- 弼屨 경북 경주시
- 春夫 서울 중구
- 興錫 서울 도봉구
- 濟源 경기 안산시
- 상근 서울 강동구
- 明錫 서울 구로구
- 海東 경기 군포시
- 德傳 서울 동대문
- 相分 서울 마포구
- 相根 서울 금천구
- 相玉 인천 가좌동
- 承彦 서울 구로구
- 貞國 서울 용산구
- 萬益 서울 종로구
- 昌根 서울 노원구
- 相鎬 인천 남구
- 기상 서울 영등포
- 載坤 전북 전주시
- 永昭 경북 경주시
- 심량 서울 관악구
- 용희 충북 영동읍
- 潤湖 경기 성남시
- 利澤 경기 용인시
- 상조 서울 구로구
- 彰東 서울 강남구
- 甲傳 서울 성동구
- 泰洙 울산 중구
- 輪洙 서울 광진구
- 瓊植 전남 순천시
- 善哲 서울 동작구
- 길조 전북 군산시
- 秉玉 서울 용산구

“속지마십시오” 중앙종친회를 사칭하면서 “족보” 등을 강매하는 사기꾼들의 전화가 걸려오면 즉각 고발하십시오

최근 중앙종친회를 사칭하면서 ‘청주한씨족보’ 제작비용과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집단이 일가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으니 절대로 속지마시기 바랍니다. ‘청주한씨족보’는 현재 중앙종친회가 일가들의 수단(收單)을 받아 제작중인 ‘인터넷한글대동족보’만이 정통성을 갖는 유일한 것입니다.

중앙종친회에서는 전화나 팩스를 통해 일가들에게 ‘족보’ 제작비용이나 구매를 강요하는 일이 없으니 절대로 속지마시고, 중앙종친회를 사

칭하는 사기꾼들의 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고발하거나 중앙종친회에 즉각 연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사기집단들은 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처하는 일가들의 협조에 의해서만이 예방할 수 있고, 일방타 진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종친회 전화번호는 (02)720-6370~1입니다. 전화번호를 물어보아 이 번호와 다른 전화번호를 대면 그들은 바로 사기꾼들입니다.

「청주한씨 '인터넷' 한글대동족보」

“실시간 입력 · 검색시스템의 재구축 관계로 입력작업 다소 지연, 수단 접수는 계속중”

사진도 입력됩니다. 입력수수료는 1매당 10,000 원 입니다.

▲ '인터넷족보' 에 조상의 사진, 가족사진, 가족들의 인물사진, 가문과 관련있는 유적사진 등 본인들이 원하는 어떠한 사진도 입력하여 자손 대대로 볼 수 있습니다.
10cmX15cm=4 인치X6인치로 어른 손바닥 크기의 사진을 족보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006년6월말까지 접수된 수단은 7월중(4차) 개통
수단비는 8천원

▲ 중앙종친회는 현행 인터넷족보시스템의 단점을 개선, 실시간 입력 · 수정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설계변경과 시스템의 재구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입력 · 수정방식이란, 수단 접수와 동시에 내용 검증을 하고, 검증이 끝나는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족보를 검색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우리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과 특징

- (1) 직계 · 촌수 검색이 가능하며, 이름 입력 즉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 (2) 선조님의 업적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 (3) 국 · 한문을 혼용, 한자를 모르는 젊은 후손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 (4) 청주한씨 인구, 남녀, 이름, 파벌 인구수 등의 각종 통계를 찾아 볼 수 있다.
- (5) 선조의 모습, 유적, 묘소, 재실, 교지, 상장, 부부 및 가족사진도 볼 수 있다.

'인터넷족보' 찾아가기 도움말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홈페이지' 찾아가기

'인터넷' 주소창에서 청주한씨 또는 www.cheongjuhan.net 중 어느 하나를 입력하고 '엔터키' (Enter Key)를 누르면 청주한씨중앙종친회 '홈페이지' 가 나타납니다. 여러 항목중 '인터넷족보' 라는 항목을 '클릭' 하면 '인터넷족보' 를 볼 수 있습니다. 시도해 보시고 잘 되지 않으면 중앙종친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찾아 「인터넷족보」에 올립니다 중앙종친회가 일가들의 조상을 찾아 드립니다

현수회장, “족보 없으면 ‘뿌리’ 없는 자손 됩니다”

우리 청주한씨는 기자(箕子)조선과 마한(馬韓)을 거쳐 이어온 왕족의 후예로서 고려조와 조선조를 통해 수많은 왕비, 상신(相臣), 공신, 장상(將相)들을 배출한 명문가족입니다.

따라서 우리 일가들은 누구나 몇 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훌륭한 조상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조상을 모셨음에도 너무나 많은 일가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뿌리' 를 모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중앙종친회는 현재 국내외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한글대동족보”를 80만 일가들의 호응속에 빠른 속도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중앙회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조상의 '뿌리' 를 찾아 「인터넷족보」에 올리는 일가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琚珠중앙종친회장은 최근 종보 편집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청주한씨는 80만명에 달하는 대성(大姓)인데 대동족보에 등재되어있는 일가는 불과 10만명 미만이니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일가들이 훌륭한 조상의 '뿌리' 를 모르고 있다”고 안타까워 하면서 “자손들에게 조상의 '뿌리' 를 설명해줄 수 없었던 그동안의 비애(悲哀)를 자손들에게까지 대대손손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라도 반드시 '뿌리' 를 찾아 「인터넷족보」에 올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琚珠회장은 특히 “수단(單單)과 함께 조상의 사진, 가족들의 사진 등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사진들을 「인터넷족보」에 올리면 대대손손 자손들이 「인터넷」을 통해 조상의 뿌리와 가정의 내력을 동영상으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족보가 없으면 대대손손 '뿌리' 없는 자손이 되니 모두가 나서서 모르고 있는 일가들에게 알려주어 '뿌리' 를 찾아 「인터넷족보」에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앞장 서자”고 호소 했습니다.

'뿌리' 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족보가 없거나 몰라도 선조님의 함자(衞字 · 이름)만 알면 '뿌리' 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종친회가 일가들의 '뿌리' 를 찾아드리고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중앙종친회로 연락을 주시기거나 방문해 주십시오.

《연락처》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인터넷대동족보' 편찬위원회
(02) 720-6370, 6371, 9215

Creative의 중심

Hanyung Communications

창조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다양하고 세련된 크리에이티브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클라이언트,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크리에이티브한 발상을 통해
지금보다 한차원 높은 디자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한발 앞선 창조정신!

최선을 다하는 믿음!
최고만을 고집하는 장인정신!



보다 선명한 인쇄!

더욱 저렴한 기획!

가장 신속한 납품!

한영인쇄는 Best Plan, Best Creative, Best Service의 광고 전략을 바탕으로 최소의 비용, 최대의 광고 효과를 이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OneStopService System(기획, 제작, 인쇄, 납품까지) 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회사를 성공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한영기획 · 한영인쇄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 카탈로그
- 기업디자인
- 리플렛
- 광고전단
- 칼라명함
- 기업브로슈어
- Web디자인
- 신문광고
- 포장디자인
- 칼라스티카

한영기획 한영인쇄사

대표 : 한범동
천안시 오룡동 110-2 (천안외환은행 앞)
전화: (041)563-7474, 522-7474 FAX: (041)563-7766

